

霞川 高雲의 문학에 나타난 思惟

朴秉益*

<차례>

1. 서론
2. 하천의 생평
3. 시대와 가족에 대한 인식들
4. 失意와 宦路意志
5. 결론

1. 서론

15~6세기 호남한문학은 유학과 더불어 성세한 시기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에 호남에서도 점차 문벌사족이 형성되었다. 광주는 광산을 관향으로 하는 김씨(金膺 1354~1418), 卓氏(卓愼 1367~1426), ~李氏(李先齊 1389~1454), 鄭氏(鄭龜晉), 盧氏(盧自亨 1414~1490) 등과 충주박씨(朴祥·朴淳), 행주기씨(奇大升), 음성박씨(朴光玉), 연일정씨(鄭澈), 여산송씨(宋齊民), 장흥고씨(高敬命) 등이 문벌사족을 형성하였다¹⁾.

이러한 문벌사족 중, 제봉 고경명으로 대표되는 장흥고씨는 그의 조부인

霞川 高雲으로부터 중앙정계로 진출이 시작되었다. 이후 5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 9인을 배출²⁾하여 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약 120년간 광주 지역 문벌사족으로 자리하였다. 그러나 문벌사족의 단초를 개창한 하천에 대한 관심을 미미하고, 오직 고경명의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그의 아들 및 손자들의 구국식만 논의되었다. 하천에 대한 관심은 『松下猛虎圖』로 미술사에서 인지³⁾와 1986년 그의 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인 복식에 대한 연구⁴⁾ 뿐이다. 문학의 세계에 대한 논의는 도외시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중앙문단에 알려지지 않은 점, 문풍의 특징이 주목받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겠지만, 그가 남긴 많은 작품들이 전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천의 문집은 1954년에 그의 16세손인 高燾錫에 의해서 『長興高氏聯錄』⁵⁾이 편찬되고 앞부분에 『霞川遺集』이 실려 있다. 유집은 권지일에 칠언 절구 5편 오언율시 2편 3수, 칠언율시 8편 16수, 5언배율 1편 1수, 칠언배율

2) 15세기 이후 압보촌 장흥고씨로 문과급제자는 高雲을 비롯하여 장자인 高孟英, 손자인 高敬命·高敬祖, 증손자인 高從厚·高因厚·高用厚·高成厚, 고손자인 高傳川 등 9명이다.

3)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2004, p.148.참고.

4) 조호순, 『霞川高雲 出土 服飾에 대한 小考』, 『한복문화』 제4권 1호, 한복문화학회, 2001.

양숙향의 2인, 『광주 출토 16세기 담화의 봉제법과 구성상의 특징에 관하여-하천 고운 분묘 출토복을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4권 4호, 한복문화학회, 2001.

5) 현전하는 국립도서관본은 『長興高氏聯錄』라는 제목에 後人이 『長興高氏聯美錄』으로 고쳐져 있다. 이 문집에는 『霽峯先生遺稿』는 그의 손자인 고경명의 유고집으로 手草楷文 1편이 실려 있고, 『龜巖遺稿』는 高敬祖의 유집으로 『挽朴懷齋(光玉)』시 1편과 13세손이 쓴 유고발격인 글 1편이, 『滄浪遺稿』는 高敬履의 유집으로 천군전병서 1편과 사마시작인 『양심구방심의』, 1편이 실려 있다. 『隼峯遺稿』는 고종후의 유집으로 『답백진사서』 1편이, 『竹村遺稿』는 高成厚의 유집으로 시 10편과 『한시제자사어제비문표』 1편이 실려 있다. 『鶴峯遺稿』는 高因厚의 유집으로 시 3편과 서 3편이 실려 있고, 『靜軒遺稿』는 高循厚의 유집으로 시 3편과 서 3편이 실려 있다. 『海槎遺稿』는 高由厚의 유집으로 시 16편이 실려 있고, 『晴沙遺稿』는 高用厚의 유집으로 4편의 시와 2편의 서, 2편의 제문이 실려 있고 끝에는 1954년 16세 손인 高燾錫의 발문이 있다.

* 조선대학교

1) 『新增東國輿地勝覽』과 『輿地圖書』를 참고로 하여 광주지역 문벌을 추출하였다.

1편 1수가 실려 있는데, 이는 모두 尹之和(1476~1558)의 『南村公遺稿』에 실려 있는 작품을 발췌한 것과 하천 手墨 1편으로 모두 17제 23수이다⁶⁾. 권지이에는 伯夷論, 「張良用漢高論, 離隔門庭論, 漢高不迎良醫論, 「項羽不渡烏江論」의 論 5편이 실려 있는데, 동국문선에 실렸다는 「伯夷論」과 후손인 高光曄씨가 소장한 작품 4편이다. 권지삼은 부록으로 11대손인 가선대부 동중추부사 高貞鎭이 쓴 가장과 16세손인 高踪錫이 쓴 묘갈명이 실려 있고, 별집 권지일에는 手墨으로 초서로 쓰여진 「別尹衢中奉使嶺南」시 1편과 安圭容(1873~1959)이 쓴 발과 14세손 光維가 쓴 跋이 실려 있다. 이후 2006년에 고희주가 『하천유집』을 번역하고, 하천의 분묘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 章(가계와 생애·출토 및 인계개요·장법과 기타 출토 유물·조선중기 우리옷에 대해 논의)을 첨부하여 새롭게 발간⁷⁾하였다.

하천은 기묘명현으로 알려졌지만, 각종 詩話書에서 문학적 평가는 전무하다. 다만, 그의 분묘에서 출토된 만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데, ‘공을 생각하면 문재가 풍부하여 시문은 붓구름이 일었지. 화려한 문장 빠르기가 물과 같아 하루에도 많은 종이에 썼지(惟公富文華 咳唾春雲起 華翰疾如流 日寫千萬紙)⁸⁾’라고 하거나, ‘문장은 일찍이 조화공과 더불어 함께하고(文章嘗與化工同)⁹⁾’라고 하여 문재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하천의 생평을 분석하고, ‘論’에 나타난 사유의 틀을 추론하고, 그의 시에 나타난 환로의 의지를 통해서 총체적인 삶의 의식을 재구하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당대에 문벌을 형성하였던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6) 閔齊仁(1493~1549)의 『立巖集』에 실린 「季應題希仲謫所二首」를 차운한 칠언절구 2수를 포함하면 시는 모두 18제 25수가 된다.

7) 高雲, 『霞川遺集全』, 2006.

8) 朴時賢, 「輓詞」, 『霞川遺集』, 2006.

9) 李成林, 「輓詞」, 『霞川遺集』, 2006.

2. 하천의 생평

高雲은 1479(성종 10)년에 아버지 自儉과 어머니 남양홍씨 대사헌 洪自阿¹⁰⁾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字는 彦龍 또는 從龍이며 호는 霞川이다. 하천의 조부 高尚志는 忠佐衛副司直을 지냈고, 부친은 특별한 벼슬을 가지지 못했다¹¹⁾. 이처럼 그의 가계는 문벌을 형성하지 못했으나, 경제적 으로 상당히 부유하였다¹²⁾. 그래서 부친 高自儉이 세거했던 영광(현재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학풍이 정착된 광주의 압보촌으로 가족을 이거했고, 지식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된다.

압보촌은 당시 良菰洞¹³⁾(지금 광주시 남구 대촌동) 지역으로 당시 광주에 속했다. 광주는 金文發(1359~1418)이 전국최초로 남전향약(藍田鄉約)을 실시했던 곳이며, 양고동은 畢門 李先齊(1390~1453)가 당시 광주현감이던 安哲石과 함께 향약을 실시했던 곳이다¹⁴⁾. 일반적으로 향약이 실시되면 성리학의 기본이념을 실천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씨족의 연대가 이루어지며, 교육열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한다. 특히 향약의 집회장소인 洞亭은 문사들이 음풍농월하는 교제의 공간이며, 사족들의 공론장이었다. 양고동 향약의 입계는 향약이 이루어진 초기라서 그런지 비교적 쉬웠다¹⁵⁾. 양고동 지역

10) 홍자아(洪自阿 생몰년 미상) 字는 次山. 號는 玉峰. 1469년 秋場試 甲科²⁾로 등과. 관은 병조참판과 경상도관찰사를 지냄.

11) 고운의 「家狀」에는 生員으로 훈도라 하였고, 고경명의 「諡狀」에는 벼슬이 기록되지 않았다.

12) 정사룡(1491~1570)의 「愁霖」시 부제에 ‘地主 高彦龍에게 부치다¹⁾’라 하여 하천이 당시에 지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천이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으로 생각된다.

13) 良菰洞에 대한 표기는 양과동이라 하나 菰가 운서에 ‘고’이므로 본고에서는 ‘양고동’이라 표기한다.

14) 朴焯, 「조선전기 광주지방의 향약과 동계」, 『동서사학제』 5집, 한국동서사학회, 1999. 참고.

15) 「立約凡例」 24조. “累代洞員子孫外 自己新入之員 新入禮設行後 許入事”

의 이러한 배경이 고자검으로 하여금 영광에서 이거하여 압보촌에 정착하게 된 동인이라 생각한다.

하천의 출생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의 지기였던 박시현이 쓴 「만사」를 보면, 압보촌에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鴨村比柳谷 압촌¹⁶⁾은 유동에 이웃하여
 鷄犬相聞地 닭과 개 소리 서로 들리는 곳이지
 總角得相遇 총각시절에 서로 만나
 白首爲知己 백수토록 지기가 되었지

박시현과 하천은 이웃한 고을에서 살았고 서로 만난 것은 총각시절이었다. 총각은 두 갈래로 머리를 묶은 모습을 표현으로 어린 나이의 소년 즉 10세 이전을 말한다¹⁷⁾. 하천의 압보촌과 박시현의 유등곡은 바로 이웃한 거리라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당시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學童으로 만나 것이 아닌가 한다.

하천은 누구를 종유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는 당대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시와 서를 일삼고 여러 경전을 널리 통달하고 성리설과 『대학』·『중용』을 익혔던¹⁸⁾ 것으로 미루어보면, 상당한 학문적 축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고동 지역은 향약이 실시되어 상당한 학문적 역량이 축적된 고을이었다. 세거한 광산 이씨는 문벌사족으로 이선제 뿐만 아니라, 그의 장남 이시원(李始元)과 5남 이형원(李亨元 ?~1479)이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러한 배경과 하천의 부인이 필문 이선제의 손녀라는 사실로 미루어보면, 이선제의 학통을 계승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하천은 1507년(중종 2년)에 29세의 나이로 사마양시 합격하고, 41세인 1519년(중종 14년)에 별시문과에 병과 14위로 급제하였다. 그러나 바로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박상과 친분관계로 화에 연루되어¹⁹⁾ 환로가 순조롭지 못하였다. 하천과 도의지교를 맺었던 정만종이 만사에서 하천이 ‘백수에 낭관으로 곤욕을 치렀다(白首郎官困²⁰⁾)’고 한 것으로 보면, 하천은 급제 후 낭관에 임명되었으나 산관으로 낙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다가 1522년 이전에 다시 출사하였다. 閔齊仁(1493~1549)의 「밤에 근정전 섬돌위에서 놀며(夜遊勤政殿階上)」라는 시의 부제를 보면, 1522년에 高雲은 正字로 芸閣의 속직이었다²¹⁾고 하였다. 이로보아 다시 조정의 부름의 받고 나갔던 벼슬은 교서관 정자였음을 알 수 있다. 하천의 「走次順卿韻留別諸公」詩 부제가 “이 때 공이 조칙을 받고 서울에 가다(時公承召赴京)”라고 하였던 것은 이때의 일이라 생각된다. 또 놀재 박상의 시에 和 高宜寧²²⁾이라는 시제가 있어 그가 의령현감을 지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즈음 하천은 자주 병으로 고생하였다²³⁾. 이후 언제 낙향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내 현읍에 왔을 때에 그대 임촌에 있어 만났지(當吾來縣邑 值子在林村²⁴⁾)’라고 하여 정만종이 1530년에 능성현령으로 부임하니 하천은 향리에 머물고 있었다. 이처럼 하천은 재기를 끝내 펴지 못하고 향리에서 1530년에 병으로 죽었다.

하천은 朴祥·尹之和 등과 도의지교를 맺고 많은 시를 수창하였다²⁵⁾.

16)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촌출장소 압촌동.

17) 『詩·齊風·甫田』. “婉兮變兮 總角卅兮”. 鄭玄箋 ‘總角 聚兩髦也’. 孔穎達疏. ‘總角聚兩髦 言總聚其髦以爲兩角也’

18) 崔峴, 『訥齋先生文集』卷之十一, 祭文, 「祭高彦龍(騁雲)文」. “早事詩書 博通群經 服膺誦習 性理學庸”

19) 『光州邑誌』. “高雲長興人 中宗己卯文科 佐郎 文章道義 爲世推重 與趙靜庵朴訥齋相友善 坐己卯黨籍 棲遯散班 號霞川”

20) 鄭萬鍾, 「挽詞」.

21) 閔齊仁, 『立巖集』卷之五, 五言詩古風, 「夜遊勤政殿階上 鄭子仁 高彥龍從焉 嘉靖壬午 余以檢閱 直銀臺 鄭以博士 直玉堂 高以正字 直芸閣」

22) 朴祥, 『訥齋先生集』卷第三, 律詩 第六峯編.

23) 윤지화 「만사」. “罹病爾來三問安 病瘳吾送爾之官”.

24) 鄭萬鍾, 「挽詞」.

25) 尹祖榮, 「行狀」, 『南村公遺集』. “與訥齋朴祥陽谷蘇世讓霞川高雲監司鄭萬鍾爲道義交

당시 동향이던 놀재가 1506년부터 1520년 사이에 광주나 광주 근거리에 관직에 있어 출사 이전부터 교유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윤지화는 1515년에 귀양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그들은 하천이 문과에 급제하기 전부터 교유하였고, 이후에도 계속되어 『놀재집』²⁶⁾과 『남촌공유집』에 다수의 수창시가 실려 있다. 또한 그의 제자로는 만사를 쓴 進士 李成林과 鄭彭壽²⁷⁾ 등이 있다.

3. 시대와 가족에 대한 인식들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사상을 분석하여 시비와 도리를 밝히는 글을 論辨類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평론이나 논설과 같은 성격의 문장을 論이라 한다. 이러한 글은 현대의 수필 중에서 에세이(重隨筆)와 성격이 비슷하여 작자의 사유관을 읽을 수 있다.

하천의 문집에는 論類의 작품으로 5편이 실려 있다. 伯夷論·「張良用漢高論」·「漢高不迎良醫論」·「項羽不渡烏江論」의 4편은 군주론과 관련된 작품이고, 「離隔門庭論」은 형제 우애에 대한 논이다. 특히 「伯夷論」의 경우는 “일세에 회자하여 지금도 사람들이 모두 등사하여 외웠다²⁸⁾.”고 하였다. 하천의 작품은 모두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그 관점은 ‘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군신관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伯夷論」과 형제에 대한 관점을 제시한 離隔門庭論을 분석하고, ‘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추론하여 하천의 사유관을 추론하고자 한다.

以詩酒唱酬

26) 朴祥의 『訥齋集』에는 「和高宜寧(雲字彥龍 號霞川)」에 8편의 수창시가 실려 있다.

27) (中宗) 鄭彭壽 字難老 號海史 郡守之末孫 霞川高雲門人 進士縣監 學筆法于安清遠門 文筆望重一世(陵州邑誌).

28) 高貞鑑, 「家狀」, 『霞川遺集』. “所著伯夷論 膾炙一世 至今人 皆謦誦”.

伯夷論은 『史記·伯夷列傳』에 기록된 고사를 평가한 글이다. 孤竹國의 두 왕자인 백이와 숙제는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늙은이를 잘 봉양한다는 西伯인 문왕을 찾아 갔다. 그런데 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 紂王을 정벌하였다. 이에 천하는 주나라 왕실을 섬겼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효와 인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수양산에 은거하여 고사리로 연명하다 굶어죽었다.

이에 대해 사마천은 “세상은 말세로 이익을 다투건만 오로지 저들만은 인의를 추구하며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천하가 이들의 칭송하였다.²⁹⁾”라고 하였고, 한유는 『춘추전』에 무왕이 商을 이기고 九鼎을 洛邑으로 옮기자 義士(伯夷 등)들이 오히려 비난했다는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³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무왕과 백이의 관계와 그들의 인식의 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하천은 伯夷論에서 두 사람의 견해가 모두 옳다는 양시론을 피력하고 있다.

하늘(무왕)과 백이는 누가 옳은가? “모두 옳다.”고 하겠다.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서로 이긴다.”고 하겠다. 어찌하여 서로 이긴다고 생각는가? “이기는 도가 임금에게 있으면 임금이 이기고, 백이에게 있다면 백이가 이긴다.”고 생각한다. “임금에게도 있고 백이에게도 있다면 누가 이기는가?”라 하면 “서로 이기거나 서로 이기지 못하여 그칠 뿐이다. 임금만 유독 이기고 백이는 유독 이기지 못한 적이 있지 않으며, 또한 백이만 이기고 임금은 유독 이기지 못한 적도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³¹⁾

하천은 서론 부분에서 무왕과 백이의 대립, 즉 군신의 관계에서 두 사람

29) 司馬遷, 『史記·太史公自序』. “末世爭利 維彼奔義 讓國餓死 天下稱之.”

30) 韓愈, 「伯夷頌」. “春秋傳曰 武王克商 遷九鼎于洛邑 義士猶或非之 義士 謂伯夷也”

31) 高雲, 「伯夷論」, 『霞川遺稿』. “論曰 天與佰夷 孰是乎 曰俱是 爭則 孰勝乎 曰交相勝 曷爲交相勝 曰勝之道在天 則天勝 在佰夷 則佰夷勝 曰在乎天 在乎佰夷 則孰勝乎 曰交相勝 交不勝 而止爾 未有天獨勝 而佰夷獨不勝 亦未有夷獨勝 而天獨不勝也”

의 견해차를 인정한다. 다만, 그것이 '天'에서 부여된 것이라면, 두 사람 모두 옳다는 견해를 전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입장을 양시론적 관점에서 전개하는 근거는 '天'에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군신의 관계라는 수직관계를 말하거나 수평관계를 말하지 않고, 오직 개별적인 사유 체계를 인정할 뿐이다.

무왕은 맹자가 이른바 천리로서 천명을 받들어 천민을 이끌고 하늘의 토벌을 행했다고 했으니 즉 무왕이 은을 공벌한 거사는 털끝만큼도 天이 아닌 것이 없다. 백이가 이에 군신의 의를 열거하면서 말머리를 막고 그를 비난하니 비난 받은 무왕은 天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략>그러므로 이에 그것을 간할 수 있었으나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하지 않았다면 그는 기꺼이 천리의 사도로 一夫(紂王)를 좌절하게 하여 그 잘못을 수용하게 했겠는가? 천하가 주나라를 조회한 뒤에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 아래에서 주려 죽었으니 주나라 곡식을 먹는 것이 수치가 아니요, 이는 임금의 곡식을 먹는 것이 수치이다.³²⁾

무왕이 은나라의 紂王을 토벌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천하는 무왕이 세운 주나라를 왕실의 중주로 섬겨 일반적으로 무왕과 백이의 관계는 군신의 관계다. 그러나 무왕이 '천'의 뜻에 따라 紂王을 섬멸하였고, 백이가 무왕을 비난한 것도 '천'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각자의 '천'을 인정한다면, 백이의 수치는 바로 무왕의 국토에서 고사리를 먹은 것이다. 따라서 두 사람의 대립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이 아니다. 두 사람이 모두 자신의 '천'을 실천했다면, 모두 옳다고 하였다.

무왕은 곧 천하의 제후를 통솔하여 하늘에 오롯함을 행하였고 백이는 곧 특별나게 독립하고 혼자 행하여 천에 오롯함을 행하였으며 무왕은 곧 상서

32) 高雲, 앞의 글. “武王 卽孟子所謂天吏而奉天命 率天民行天土 則武王伐殷之舉 無一毫而非天也 伯夷 乃能舉君臣之義而遮馬首而非之 非之武王 乃所以非天也 <中略>故乃能爭之而不惑也 不然其肯以天吏之師 見挫於一夫 而容受其非乎 及天下宗周之後 不食周粟 餓死于首陽之下 非恥食周粟也 恥食天之粟也”

로운 조짐(白鳥火鳥)을 얻어 그의 천을 밝혔고 백이는 말 머리를 두드리고 대의를 거론하여 그의 천을 밝혔으며 무왕 곧 화이와 만맥이 모두 통솔되어 그의 천을 이루었고 백이는 곧 그의 곡식을 먹지 않고 수양산에서 굶주려 그의 천을 이루었으며, 무왕은 곧 의상을 드리워 그의 천에 즐거워했고 백이는 곧 고사리를 달게 여겨 그의 '天'에 안주했으니, 이때를 당하여 무왕은 다수가 되고 백이는 소수가 되어 그 다투게 된 것이라면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졌겠는가?³³⁾

무왕이나 백이는 각각 자신의 세계에서 '天'을 밝혀 그것을 실천했을 뿐이다. 무왕은 왕으로서 시대를 인식하여 주를 세웠고, 백이는 백이의 관점에서 고사리를 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렇기에 시대와 상황의 인식이 다를 뿐, 누가 이기고 진 사람이 없다. 무왕과 백이의 시대와 상황 인식은 바로 '천'의 관점이다. 그렇기에 하천은 양시론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이러한 사유는 당대의 기묘사화 사림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관점과 동일선상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離郢門庭論 은 송나라 초기에 謝瞻과 謝晦의 형제간 일어난 일을 '천'이라는 관점에서 논한 글이다. 謝瞻(387~421)은 사회의 형이다. 그의 부친은 謝重으로 위장군을 지냈으며 그의 형제는 謝綯·謝澥·謝瞻·謝晦·謝嘯으로 5 형제였다. 사침은 存謹自守하여 작록을 가볍게 여겼다. 그런데 그의 동생인 謝晦(390~426)는 송나라 건국초기부터 고명으로 신뢰를 쌓아 권세와 지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그만 집안에 울타리를 치고 살게 되었다. 이에 대해 형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논한 글이다.

하천은 먼저 형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33) 高雲, 앞의 글. “武王則 率天下之諸侯而爲一天 伯夷則 特立獨行而爲一天 武王則 得白鳥火鳥而明其天 伯夷 叩馬首舉大義而明其天 武王則 華夷蠻貊 罔不率俾而成其天 伯夷則 不食其粟 餓於首陽而成其天 武王則 垂衣裳而樂其天 伯夷則 甘採薇而安其天 當此之時 武王爲衆 伯夷爲寡 而其所以爭之者 果孰勝而孰不勝耶”

흔적을 혹 분산시킬 수 있으나 마음을 분산시킬 수 없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친족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형제에 대해 근심이 깊음은 사랑함이 지극하기 때문이고, 가르침이 성급은 경고함이 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근심할 만함을 이는 것은 마땅히 이치로 그를 깨우치게 함이 있고 당연히 경계할 것을 안다면 반드시 도리로 그를 깨우치는 데에 기약해야 한다. <중략>오직 이치로 그것을 깨우쳐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외부의 유혹을 끊게 하며 도리로써 그를 깨닫게 하여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선을 행하는 것을 즐겁게 한 뒤에라야 밖으로는 서로 소원한 흔적을 없애고 안으로는 이미 흡족한 환희를 온전하게 한다.³⁴⁾

형제란 하늘이 부여한 친족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형제에 대한 근심이 바로 나의 근심이고 나의 근심이 형제의 근심이라고 전제한다. 그렇기에 군자가 형제애를 도외시킬 수 없다. 군자는 형제에게 문제가 있으면 이치로써 꾸준히 깨우치도록 노력하여 兄友弟恭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사침으로 하여금 진실로 그가 자신에게 있는 정성을 다하여 아우의 근심을 자신의 근심으로 삼고 아우의 근심을 끌어서 자기의 허물로 삼는다면 욕됨이 없는 훈계는 誘掖에 부지런하고 式穀의 회유는 오매에도 엄해야 하니 화목한 즈음에도 지극히 친함을 보존하고 힘쓰는 사이에서도 깊은 사랑을 더할 수 있다.³⁵⁾

하천은 진정한 형제의 우애는 아우의 근심을 자기의 근심으로 삼아 훈계와 회유로 아우를 이끄는 것이 형으로서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우의 잘못이 있으면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아우의 근심이 있으면 자기

의 근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형이 아우를 사랑하는 자세이라고 하였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순임금의 덕과 주공의 성으로 여전히 그의 형제를 교화할 수 없다면 어떻게 착하지 못한 동생을 이치로 깨우치게 하고 도리로 깨닫기만을 기대하면서 앉아 그의 화가 앞으로 이를 것을 보고 처소에서 그것을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⁶⁾”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는 “순임금은 아우로서 상을 보고 상으로서 상을 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성스럽고 믿어서 그를 즐겁게 했다. 주공은 형으로 관숙을 보고 관숙으로 관숙을 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성스럽고 믿음으로 그를 부렸다.³⁷⁾”라고 하여 동생을 한 개체로 보지 않고 형제라는 질서 안에서 형과 아우만으로 대상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허물을 후회함이 허물이 없는 만 못하고 화를 멀리함이 화를 없애는 만 못하다. 이제 허물이 없는 데에 아우를 두려하지 않고 그 허물을 후회하게 하려거나 아우의 화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의 화를 멀리 하고자 한다면 그의 아우를 적대하는 것과 가깝지 않겠는가?³⁸⁾”라고 하여 허물은 객체적 대상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인식한다면 그것은 형제라는 범주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형제애에 대한 하천의 ‘천’이었다.

하천의 형우제공하는 형제관은 그의 가문이 문벌사족으로 성장하고, 이러한 가풍은 임진왜란 때에는 제봉의 형제와 자식의 형제가 넓게는 나라를 위해서 좁게는 형제애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하천은 매사를 판단하는 ‘천’은 무엇인가? 두 글에서 보여준 것처럼 ‘순리’

34) 高雲, 『離隔門庭論』, 『霞川遺稿』. “跡或可離 而心不可離者 天屬之親也 故君子之於兄弟也 憂之深 乃所以愛之至也 示之疎 乃所以警之嚴也 然知其可憂者 宜有以諭之以理 知所當警則 必期於以道 <中略> 惟其諭之以理 使其心 絕於外誘 悟之以道 使其心 樂於爲善然後 外無相疎之跡 而內全既洽之歡矣”

35) 高雲, 앞의 글. “使瞻 苟能盡其在己之誠 以弟之憂 爲己之憂 引弟之過 爲己之過 無忝之訓 勤於誘掖 式穀之誨 嚴於寤寐 存至親於怡怡之際 加深愛於勉勉之間”

36) 高雲, 앞의 글. “難者曰 以舜之德周公之聖 猶不能化其兄弟 則豈可以不令之弟 以諭於理 期之以悟於道 坐見其禍之將至 而不爲之所乎”

37) 高雲, 앞의 글. “不然 舜以弟視象 而不以象待象 故誠信而喜之 周公以兄視管叔 而不以管叔待管叔 故誠信而使之”

38) 高雲, 앞의 글. “悔過不如無過 遠禍不如消禍 今不欲置弟於無過 而欲使悔其過 不欲消弟之禍 而欲以遠其禍 則不幾於賊其弟乎”

로 인식하고 있다. 즉 ‘義理之天³⁹⁾’으로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한다. 이는 『중용』의 사유체계인 ‘天命之謂性’을 근간으로 한 인식의 틀이다. 따라서 하천이 갖는 ‘천’은 보편성을 가지며 군자로서 당당한 자세이다.

4. 失意와 宦路意志

현전하는 하천의 시는 남촌 윤지화와의 수창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묘사화 이후의 실의기의 삶을 형상화한 시가 대부분이다. 하천은 문과에 합격하자 바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산관으로 낙향하고 이후 환로에 재진출하나 크게 쓰이지 못하고 다시 낙향하다 생애를 마쳤다. 하천의 시에서 일부 안비낙도의 삶을 읊은 작품이 보이기도 하나 대부분의 실의기에 환로의 의지가 면면이 드러난다. 궁벽한 시골에서 詩酒를 벗하여도 마음은 언제나 환로를 생각한다.

하천은 도의지교를 맺었던 윤지화를 방문하여 화답한 시에서 실의 빠진 자신의 삶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閒齋一夜共支頤	한가로운 서재에서 밤새도록 함께 턱을 괴고
萬事端宜付酒卮	만사는 술잔에 맡김이 정말로 마땅하네
蹙蹙長途憐泣路	힘겨운 여정에 울며 선 길만 불쌍히 여기고
蒼黃世態憶悲絲	변화불측한 세태에 가없는 실만을 생각하네
無人可與彈流水	함께 流水曲을 탈 만한 사람이 없으니
有淚空揮聽竹枝	죽지사 들으며 부질없이 눈물만 흘리네
賴遇主人情繾綣	믿고 만난 주인은 마음이 깊고 온후하여
盡傾深抱醉多時	깊은 마음 다 기울이려 모든 시간을 취했네

39) 馮友蘭은 『中國哲學史』에서 ‘天’을 物質之天, 主宰之天, 運命之天, 自然之天, 義理之天으로 분류하고 있다.

「與朴倚重訪柳卿和贈 二律」

그의 일상을 간결하게 함축한 작품이다. 수련에서는 자신의 생활을 그대로 형상화하였다. 찾아가 친구와 멍하니 턱을 괴고 앉았다가 수심에 쌓인 일엔 술잔을 기울인다. 함련에서는 울어버릴 만큼 고독과 창황한 세태는 戰國시대에 楊朱가 갈래길에서 망설임과 같다⁴⁰⁾. 아울러 실에 푸른색을 물들이면 푸른색으로 노란색으로 물들이면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한 목자의 고사⁴¹⁾를 인용하여 의지에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을 탄식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련에서 우수곡을 탈만한 사람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죽지사를 들으며 안타까워한다. 우수곡은 「高山流水」로 古琴曲의 이름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은둔자의 거처를 상징하는 말로 그곳에서 함께 하며 세상을 노래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죽지사를 듣는다. 죽지사는 ‘지방의 풍속을 노래한 가요’이다. 당시의 세태와 백성들의 삶을 형상화한 노래를 들으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벗의 온후한 마음 즉 포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에 속내를 털어놓고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벗이다.

순경과 함께 순승의 유정에 이르러 메인 말을 보고 우연히 읊조렸던 시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霜蹄千里局重開	준마인 천리마 기국이 거듭 한가롭건만
逸氣飄飄霄漢干	뛰어난 기상 포포히 소한을 구하네
我亦十年磨一劍	나도 십년을 한 자루 칼만 갈았는데
不知何日出桑乾	모르겠네, 어느 날 상간으로 나갈지

「與柳卿到順承榭亭見繫馬偶吟⁴²⁾」

40) 『淮南子·說林訓』, “楊子 見塗路而哭之 爲其可以南 可以北”

41) 『墨子·所染』, “子墨子 言見染絲者而歎曰 染於蒼則蒼 染於黃則黃……故染不可不慎也”

42) 高雲, 『霞川遺集』卷之一, 詩.

준마인 천리마에 자신의 삶을 환치시킨 시이다. 기·승구에서 천리마는 자신의 능력이 매인 상태이지만, 본래 가진 기상은 표표하여 저 멀리 은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천의 심정이다. 그래서 전구에서는 하천은 십년을 한 자루 칼만 간다고 하여 독한 마음으로 실력을 쌓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렇지만 걸구에서 상간으로 나아가 다시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다고 탄식한다. 상간은 당나라 시인 賈島의 「渡桑乾⁴³⁾」 시에서 유래한다. 가도는 병주(太原府)에서 벼슬살이하며 고향을 그리워했으나,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 병주가 다시 고향처럼 그리워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바로 벼슬살이를 그리던 ‘서울’을 말한 것으로 하천의 내재적 의도는 환로에 대한 그리움이라 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을 표현하여 친구인 순경에 보내는 시에서는 환로에 대한 의지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散誕江湖秋復春 소오하는 강호는 가을인가 했더니 봄이라
不嫌明世作閒人 꺼리지 말게, 태평성대가 한가로운 사람 만듦을
羊裘穩縮經綸手 양 갖옷 입고 경륜의 숨씨를 확실하게 쌓았어도
金殿誰憐草野臣 궁궐에서 누가 초야에 묻힌 신하를 아끼겠는가
十載後交推石友 십 년이나 뒤의 교유는 자연의 벗을 생각하고
百年吾道感祥麟 백 년 동안의 우리 도는 상서로운 기린 감응했네
蓬門久閉君能訪 사립문 오래도록 닫혔으니 그대 찾아올 수 있다면
起我昏昏懶病身 내 혼미하여 나약하고 병든 몸을 흥키켜 주겠지
「述懷寄贈順卿」

퇴향하여 생활하면서 느낀 감회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수련에서 하천은 태평성대에도 한가로이 지내는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왜

43) 客居并州已十霜 歸心日夜憶咸陽 無端更渡桑乾水 卻望并州是故鄉.

나하면 함런에서 양구(羊裘)를 입은 嚴子陵처럼 숨어살며 경륜을 가졌지만 궁궐의 임금은 초야의 신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⁴⁴⁾. 하천은 자신을 엄자릉에 비유하며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 스스로 자위한다. 경련에서는 군자는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교분을 맺고⁴⁵⁾ 공자가 기린이 나타나자 춘추를 썼던 것처럼 바른 도를 수양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천은 이제 이렇게 유리된 삶 속에서 혹 혼미하고 나약하고 생각이 고루해질까 걱정하며 윤치화로 하여금 방문하여 담론을 나누기를 바란다. 담론은 하천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가를 깨닫게 해 주길 바라고 있다. 결국 윤치화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환로에 대한 내적 갈등의 자문일 뿐이다.

靑山影裏掩蓬門 청산 그림자 속에 사립을 닫았으니
誰訪窮人到竹村 누가 궁인을 찾아 죽촌에 이를까
偶然相值詩壇匠 우연히 시단 우두머리 만난다면
高韻誠非減許渾 고상한 운은 진실로 허혼에 지지 않으리
「次順卿過功甫家吟」

향리에 머물어 고립된 사람이지만, 시로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는 의지가 그대로 표출된 작품이다. 기·승구에서 궁궐에 상대적인 청산, 그리고 그 청산 속에서 사립을 닫고 있는 시인의 모습에 그 누구도 찾아줄 사람이 없다. 전·결구에서 스스로 시단의 우두머리를 만나도 고상 운은 許渾(?~858)에게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혼은 唐末의 시인으로 자연을 좋아했다. 그러나 슬픈 노래 부르고 울분을 토하며 높은 곳에 올라 옛날을 회상하며 굳센 마음을 드러내었다.⁴⁶⁾ 즉 자연에 묻혀 살면서도 나라의 운명

44) 『後漢書 卷九十三·逸民列傳』. “嚴光字子陵 一名遵 會稽餘姚人也 少有名 與光武同遊學 及光武即位 乃變名姓 隱身不見 帝思其賢 乃令以物色訪之 後齊國上言 有一男子 披羊裘釣澤中 帝疑其光 乃備安車玄纁 遣使聘之……”

45) 王通, 『中說』. “君子先擇而後交 小人先交而後擇 故君子寡尤 小人多怨”.

46) 辛文房(元), 『唐才子傳·許渾』. “渾樂林泉 亦慷慨悲歌之士 登高懷古 已見壯心”

을 걱정하고 感傷情調의 시를 읊은 시인이었다. 하천은 허혼과 동질화(Identity)를 통해 자신도 역시 나라를 끊임없이 걱정한다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하천의 환로에 대한 의지는 궁궐에서 첩지를 받고 다시 출사하던 날의 시에 그대로 나타난다.

醉不成歡天亦怒	취하여 즐기지 못했는데 하늘도 노하였는지
紛紛六出棲松樹	흰 눈이 휘날리며 소나무에 내려 앉네
清香已到階邊梅	맑은 향기 이미 섬돌가 매화에 이르고
春意將萌門外柳	봄뜻은 장차 문밖의 버들을 싹 틔우네
滿座賓客詩興濃	가득 앉은 손님들은 시흥이 도도하여
傳觴二八歌聲吼	술잔 나누니 기녀들 노랫소리 흥건하네
青山萬朵遠高低	청산엔 모든 나뭇가지 멀리 높고 낮아
綠酒千盃續左右	좋은 술 천 잔이 좌우에 어지럽네
路指雲霄愁自多	길은 운환을 가리키니 수심 절로 많아져도
情深膠漆何嫌後	마음 깊이 끈끈한데 어찌 훗날을 의심하리
百年厚意視雷陳	백년 두터운 마음은 퇴의와 진중을 보는 듯하고
千載高名仰山斗	천년 높은 명성은 태산과 북두를 우러르는 듯하네
養德深村一議無	심벽한 마을에서 덕을 기르는 논의는 한 번도 없건만
爭名宦海人譏有	명성을 다투는 벼슬살이엔 사람의 기롱만 있네
新詩贈我摠明珠	새로운 시 나에게 보내니 명주를 싸운 듯하고
寸赤輪君終白首	작은 마음 그대에게 보내다 끝내 머리만 희었네
靑史垂芳想不輕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건 생각해도 가볍지 않으니
緗篇入味知誰朽	누런 책에 맞들어서 누가 썩었는지를 알겠네
離程相會適斯人	떠나는 길 서로 만나 이 사람을 꾸짖어도
漢北重逢應是叟	한수 북에서 거듭 만나길 이 늙은 이 응하리라
寒日未曛吾亦醒	겨울 해가 아직 지지 않았는데 나는 또한 깨었으니
臨歸且問更留否	돌아가면서 또 머물건가 아닌가를 물어보네

「走次順卿韻留別諸公(時公承召赴京)」

벼슬에 나가는 잔치에서 주변의 시샘에도 시인의 기쁨이 묻어나는 작품이다. 눈 내리는 날 축하연이 벌어졌다. '맑은 향기 이미 섬돌가 매화에 이르고 봄뜻은 장차 문밖의 버들을 싹 틔우네(清香已到階邊梅 春意將萌門外柳)'라고 하여 고통 속에서 이제 막 희망을 찾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마음 깊이 끈끈한데 어찌 훗날을 의심하리(情深膠漆何嫌後)'라고 하여 친구들과 맺은 마음이 아교처럼 굳어졌으니 이제 뒷날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바로 퇴의와 진중과 같은 언약을 지키겠노라고 말한다. 미루어보면 당시 기묘사화로 인하여 퇴향했던 벗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마음의 표현이다. 또한 '덕을 기르던 깊은 고을엔 논의는 한 번도 없더니 명성을 다투는 벼슬살이엔 사람의 기롱만 있네(養德深村一議無 爭名宦海人譏有)'라고 하여 궁벽한 고을에서 살 때는 별다른 말이 없더니 이제 벼슬에 나아가니 이러쿵저러쿵 속닥거리며 기롱하는 벗들에게 다짐한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 본적이 없고, 누런 책에 맞들어서 누가 썩었는지를 알겠네(靑史垂芳想不輕 緗篇入味知誰朽)'라고 하여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심정과 경서를 익힌 군자는 분별력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다. 그렇기에 환로 생활을 하기위해 길을 떠나는 자신에게 비난이 쏟아져도 그는 다들 한양에서 만나자고 다짐한다. 벗들은 하천이 취중에 그런 결정을 했는지 돌아가면서 묻지만 스스로 깨어 있다고 하여 환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하천의 유작들은 벽촌에서 대과를 급제하고 벼슬에 오래 머물지 못한 자신의 신세는 늘 환로를 통해서 실천해 보고 싶은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그의 시적 표현은 전고를 잘 활용하고 있다.

5. 결론

15~16세기 광주의 장흥고씨는 하천으로부터 5대에 문과 급제자가 9명에

이른 문벌사족이다. 이후 제봉 고경명이 임진왜란 때 그의 아들 종후·인후와 함께 창의구국(倡義救國)의 격문을 돌려 의병을 일으키고 참전하여 순절하였다. 이처럼 16세기에 들어 장흥고씨가 문벌사족으로 성장하게 된 동인은 霞川 高雲에서 비롯되었다.

하천 당시의 사람들처럼 성리학과 『대학』·『중용』의 학문을 익혀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불우한 환로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문재와 재예에도 상당한 경지를 이루었다. 따라서 하천의 사유관이 무엇인가를 엿보려고 「伯夷論」·「離隔門庭論」과 유집의 시를 분석하였다.

「伯夷論」에서 무왕과 백이에 대한 견해는 양시론적 입장에서 전개하여 각기 가진 ‘천’을 인정하였다. 「離隔門庭論」은 형제란 하늘에 부여한 친족이기에 서로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 그렇기에 형은 아우의 과실을 도리로 깨우쳐 함께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천’에 의해서 행했는데, 이 ‘천’은 순리이고 義理天이며, 당시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 사유관이라고 생각된다. 그가 남긴 시편은 기묘사화 이후 환로의 실의기 작품이 대부분이다. 이 작품들에 나타난 특징은 하천의 포부를 환로에 실천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하천의 삶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그의 사유는 외적으로 순리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고, 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하천은 환로의 의지가 상당히 굳건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와 의지는 바로 당대의 압보촌 장흥고씨가 문벌사족으로 성장한 배경이었으리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長興高氏聯錄』

高雲, 『霞川遺集』(2006)

『史記列傳』

尹之和, 『南村公遺集』

朴 祥, 『訥齋集』

朴 焯, 「조선전기 광주지방의 향약과 동계」, 『동서사학제』 5집, 한국동서사학회, 1999.

金敏鎬, 「계보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백이·숙제 고사연구」, 『중국소설논총』제 16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2.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The Philosophy Of Hacheon Goh-un Expressed In His Literature

Park, Byung-ik

Hacheon Goh-un(1479~1530) was the main motive that made the Gohs from Changhung grow into a distinguished family in the sixteenth century. Since then, the family had produced literary men such as Goh Gyeong-myeong. Hacheon studied Sung Confucianism and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owever, he was in adverse circumstances during his government post because he was implicated in the Kimyosawha, a massacre of scholars in the year of Kimyo. I analyzed the poems in Hacheonyugo collecting his posthumous works, which led to the following.

He developed his view on Muwang and Baeki in Baekiron, a book about Baeki, with the theory that both sides were right. He expressed the idea that an elder brother should teach his younger brother duty to make him realize his negligence in his book Igyeokmoonjeon. He held the opinion above on the basis that the Sky means rightness and responsibility. Most of his poems were written while he was in a state of despondency after the Kimyosawha. They are characterized by the description of his great determination to put his belief into practice as a government official.

Key words : Goh-un, a distinguished family(문벌사족), Kimyosawha, both sides were right(兩是論), rightness and responsibility(義理天).